



코오롱글로벌 (003070)

탐방노트 - 주택 부실 제거 후 안정적인 건설 포트폴리오로 전환, 수입차 유통사업 성장성 기대됨

◎ 코오롱글로벌 개요

2011년 12월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아이넷(무역 상사), 코오롱비엔에스(BMW유통 등) 합병하여 설립됨
 시가총액 3,037억원, 총 주식수 8218만주 (자사주 658만주), BW 1503만주(행사가격 5,000원)
 2012년 매출액 3.7조원, 영업적자 187억원 (842억원 대손반영 때문), 순손실 286억원으로 부진

◎ 재무 리스크 점검

2012년말 자본총계 4,457억원 대비 PF우발채무 1,330억원, 순차입금 6,345억원 여전히 과도한 수준
 그러나 2013년 이후 1,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예상으로, '15년까지 순차입금 5,000억 이하 기대
 2013년 만기도래하는 고금리 회사채 약 2000억원은 보유현금(1764억원)으로 상환 혹은 낮은 금리로 차환할 계획
 연간 순이자비용 2011년 650억원, 2012년 580억원, 2013년 560억원으로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복귀 예상

◎ 주택 부문 리스크 제거

PF우발채무 2009년말 4624억원에서 2012년말 1330억원으로 감축
 2009~2012년 건설 부문 대손상각 2,409억원
 준공후 미분양 2008년말 1234세대 → 2012년말 59세대
 동사는 향후 도급 주택 (재건축/재개발) 사업만 영위할 계획으로 주택 시황에 따른 Risk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

◎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

① 건설 부문 : 기존에 주택을 주력으로 했으나, 발전플랜트, 환경(상하수도)를 주력으로 전환

성문발전(충남 아산, 열병합) EPC 및 운영지분 15% 확보, 김천 열병합발전(50%지분), 오성 복합화력발전 건설참여
 2012년 해외 상하수도(베트남, 스리랑카, 케냐, 탄자니아)에서 2,000억원 신규수주
 2012년 1.1조원 신규수주 (토목, 환경, 플랜트 수주비중 64.8%), 2013년 신규수주 목표 1.7조원
 2012년 건설부문 인력구조조정으로 인건비 100억원 감소

② 유통 부문 : BMW유통(국내 시장 점유율 32.3%), BMW A/S(국내 시장 점유율 50%이상)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대됨.

2013년 BMW와 MINI 함께 1.1만대 수입 판매 목표 (매출원가율 89% 수준, 2012년 영업이익 380억원 추정)
 향후 자동차 보험, 중고차 딜링까지 사업 확대할 계획

구분 (억원)	2012	2013
BMW(MINI) 판매	5806	6443
BMW(MINI) A/S 사업	874	1005
IT H/W수입유통, IT솔루션	2377	2605
기타	414	461
합계	9471	10514

③ 무역 부문 : 철강재 수입 중심에서 철강재 수출로 영역 확대 등 (매출액 2012년 1.14조원 → 2013년 1.28조원)

◎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

2015년까지 매출 5조원, 영업이익 2000억원, 순이익 1000억원 목표

◎ 기타

투자유가증권 장부가 1800억원(덕평휴게소, 코리아이플랫폼(MRO사업), 김천에너지 등)

- 당사는 3월 5일 현재 '코오롱글로벌'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